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
AI 우려 완화 속 이틀째 증시 상승, 채권시장은 약세

- 미 증시는 DOW +0.63% S&P500 +0.81% NASDAQ +1.26% 기술주, 금융주 필두로 상승
- AI 우려 완화에 따른 상승 나타난 가운데, 투자심리 향방을 가를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장후반 소폭의 되돌림
- 채권금리는 상승 10Y 4.054%(+0.52%).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후퇴 기조에서 트럼프대통령 국정연설 후 안전자산 선호 완화된 영향

트럼프 국정연설, 새롭지는 않은 정책의 반복

- 관세 정책 고수 입장 재확인. 24 일부로 발효된 글로벌관세는 10% 부과중이나, 15%로 올리겠다고 발언. 반면 그리어 USTR 대표는 글로벌관세를 '일부 국가에' 15% 인상 적용할 것으로 밝히며 입장차
- 이란 핵문제는 외교적 해결 원하나 군사력 동원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. 다만, 11 월 중간선거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 참모들의 반대 이어지고 있음. 26 일 이란과의 핵협상 확인 전까지는 긴장 국면 지속
- 또한, 트럼프 대통령은 AI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 수요는 자체 발전소를 건설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. 이에 독립발전사업자(IPP) 수혜 기대 CEG(+4.2%), VST(+2.2%), TLN(+4.3%)

엔비디아 실적발표 전 펼쳐진 AI 센티먼트 회복 기조

- IGV(S/W ETF, +3.1%)는 고점 대비 -35%까지 하락 후 이틀째 상승. 톰 리 펀드스트랫 창업자는 S/W 주의 거래량 폭증에 주목하며, 큰 폭의 매도세 이후 바닥 신호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 전망. UBS 의 IBM 투자의견 상향도 섹터 센티먼트 개선에 기여
- 블루아울캐피탈(OWL, +5.8%) 환매중단 관련 사모대출 우려도 진정 양상. UBS 는 사모대출시장 부도율이 최악의 경우 15%에 달할 수 있다며 경고했으나, BofA 는 사모대출 산업에 대한 오해로 과매도 국면이라는 분석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
- 엔비디아는 장중 실적 낙관과 블랙웰 칩 수요 기대감에 의한 상승 한편 최근 반복된 실적발표 후 조정 패턴 경계에 장후반 일부 상승폭 반납. 장마감후 발표된 4Q25 실적은 데이터센터 매출 $623 억(YoY +75%) 포함 분기 매출 $681 억(YoY+73%)으로 시장 기대치를 20 억 이상 상회, 가이던스도 20 억 이상 상회하며 시간외 상승

특징주: 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NVDA	엔비디아	+1.4%	장 마감 후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매수세 유입되며 정규장 상승 마감.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시간외 주가 상승 중
IBM	IBM	+3.6%	UBS에서 투자의견 매도→중립으로 상향조정, TP $236 로 제시하며 주가 상승
CEG	콘스텔레이션에너지	+4.2%	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EPS가 컨센 상회하며 주가 상승. 트럼프의 빅테크 기업의 전력수요 자체 수급 지시 발언에 IPP 기업 수혜 기대
ORCL	오라클	+1.2%	오펜하이머가 투자의견을 수익률 보통(Perform)→수익률 상회(Outperform)로 상향 조정하고, TP $185를 제시하며 주가 상승
CRCL	써클	+35.5%	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상회하며 급등. CEO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, 개발자, 공공기관이 디지털 달러를 적극 도입하며 UDSC 채택이 지속 확장되고있다 설명
FSLR	퍼스트솔라	-13.6%	4분기 실적 쇼크 및 부진한 매출 가이던스 여파로 주가 급락